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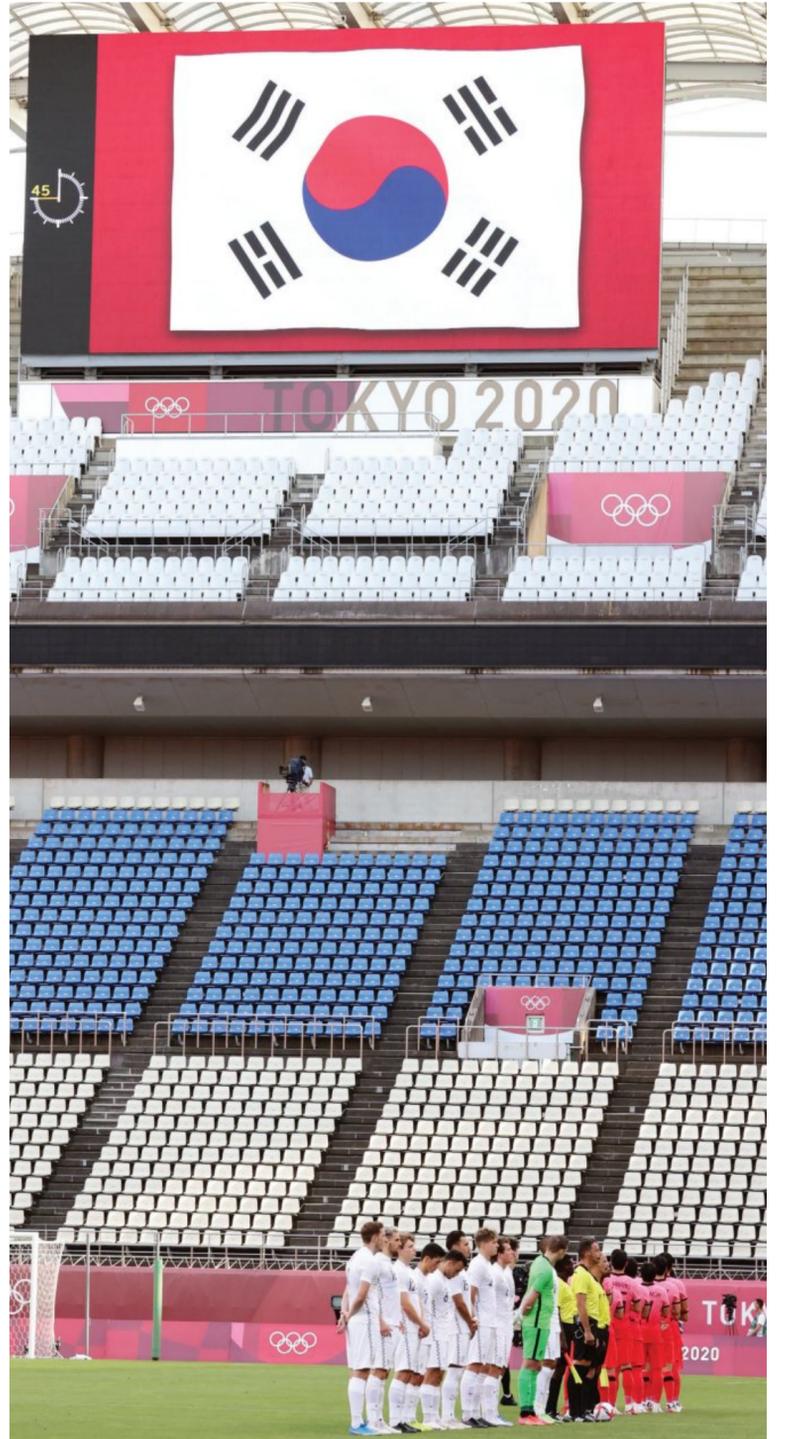
관중도 축하도 없이...도쿄올림픽 오늘 개막

사상 첫 1년 연기 홀수해에 열려
한국 354명...금 7개 10위권 목표
광주·전남 선수·임원 53명 참가
24일 양궁·사격 등 '골든데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이 23일 오후 8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에서 막을 올린다. <관련기사 18·19면>
당초 2020년 7월 열릴 예정이던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 대유행 탓으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1년 연기돼 홀수 해에 개막한다. 도쿄올림픽은 8월 8일까지 열리며 33개 정식 종목에서 금메달 339개를 두고 205개 나라 1만5000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룬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29개 종목에 선수단 354명(선수 232명·임원 122명)을 파견했다. 김재우 전남도체육회장이 대한민국 선수지원단장으로 참가하는 것을 비롯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21명, 32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다. <관련기사 18, 19면>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이상을 획득해 5

회 연속 종합 10위 이상을 노린다. 24일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골든 데이로, 양궁 혼성단체전, 남녀 태권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경기가 열린다. 광주·전남 출신 전용태(광주시·근대5종), 안산(광주여대·양궁), 광주체고를 졸업한 안세영(삼성생명·배드민턴) 등도 금메달 레이스에 가세할 유망주들이다.
한국은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국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하계 대회에서 통산 90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에서 13개씩 금메달을 수확했고, 1988년 서울과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12개씩 금메달을 따내는 등 하계 대회 통산 금메달 90개, 은메달 87개, 동메달 90개의 성적을 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를 추가하면 하계 대회에서 통산 100번째 금메달 이정표를 세운다.
대한체육회는 일본 도쿄 신국립경기장에서 막을 올리는 도쿄올림픽 개최식의 한국 선수단 남녀 공동 기수로 수영 유망주 황선우와 여자 배구 김관스 타 김연경을 선정했다. 김연경은 5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빛나는 '사격 황제' 진중오와 더불어 선수단의 남녀 주장도 맡는다.
이거흥 대한체육회장은 결단식에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선수단을 향한 국민의 염려를 감사히 여기고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럼에도 전 지구적 축제인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심신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쿄에서는 57년 전인 1964년, 아시아 대륙에서는 최초로 하계올림픽이 열렸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도쿄올림픽은 1896년 근대 올림픽 태동 이래 연기된 최초의 올림픽, 감염병으로 미뤄진 첫 사례 등 불명예를 안고 개막한다. 일본 정부와 IOC는 변종 바이러스의 일본 유입을 막고자 해외 관중은 물론 확산 억제에 위해 일본 내 거주민의 경기 입장도 막았다. 전 경기의 96%는 관중 없이 치러진다. 'TV 올림픽', '안방 올림픽'이 현실이 됐다.
국민급 개최식 참가자도 예상 밖으로 적다. 선수들은 시상대에서 자신의 손으로 메달을 목에 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텅 빈 관중석 한국과 뉴질랜드의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1차전이 열린 22일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의 관중석이 텅 비어 있다. 이날 경기는 코로나 탓에 가시마 지역 소수 초등학생들이 동원돼 본부석 기준 왼쪽 끝대 뒤편 좌석만 일부 채운 채 치러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도쿄도 일원에 4번째 긴급 사태를 8월 22일까지 발효하면서 올림픽 전체 경기의 96%가 무관중으로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휴가철 접친 주말·휴일 코로나 확산 고비

광주, 외국인 유학생 관련 15명으로
전남, 유치원 이어 유흥업소 집단감염

수도권발 코로나 19 확산세 속에 여름 휴가철의 첫 주말(17-18일)까지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2면>
7월 들어 전파력이 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광주와 전남에서 우세종으로 자리잡은데다, 수도권발 지역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주말과 휴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선 모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집단 감염과 관련해 3명이 추가되는 등 6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3220명을 기록했다.

이 대학에서는 지난 19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9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다른 2개 대학에서도 1명씩 확진자가 발생했다. 모두 베트남 유학생들로 이들 12명 외 3명이 식당 등에서 접촉으로 확진됐다. 지표 환자는 성남 확진자와 접촉으로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주 광주시 북쪽건 강국장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은 여전히 여수지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유치원 집단감염이 수그러 들자 대전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업소에서 20-21일 이틀새 7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는 최근 들어 거의 매일 두자릿 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분명치 않은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남에선 월요일인 지난 19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모두 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43명이 여수에 집중됐다. 여수 여천초 병설유치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원생 11명, 초등학교생 11명, 학부모 3명, 유치원 교사 1명 등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유치원 관련 첫 확진자로 조사된 교사(전남 1834번)를 감염시킨 확진자(전남 1735번)가 전파력이 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드러난 게 부담이다. 유치원 집단감염에 이어 21일 밤과 22일 낮동안 대전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여수지역 유흥업소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여수지역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 아래 방역당국은 여수지역에 대해서만 22일 새벽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으나, 효과를 내는 데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지난 21일 18명, 22일 오후 6시 현재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1875명이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폭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 대통령 "일상 복귀 신경 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

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킨케어 및 중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리움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킨케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